

추락 주가 반등... 금융시장 숨통

美 “초저금리 유지” 한국 주식시장 호재로... 환율은 급락

끝없는 추락세를 보이던 국내 금융 시장이 1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초저금리 유지 소식에 힘입어 7일 만에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98% 오르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각각 4.74%와 5.29% 올라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런 수준이다.

◇코스피·코스닥 반등...환율 하락 =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89포인트(0.27%) 오른 1806.24로 마쳤다. 코스닥은 최근 6일간 371포인트나 떨어졌다가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76.05포인트(4.22%) 급등한 1877.40으로 출발해 1877.40까지 치솟았으나 등락을 거듭하다가

1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2013년 중반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간밤 뉴욕증시가 반등했고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다.

외국인은 7일째 ‘팔자’에 나서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다. 이날 하루 1조 2841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최근 7일간 4조 5000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도 나홀만에 ‘팔자’로 돌아서 2320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기관 중 지수 방어 의사를 밝힌 연기금만 59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20.67포인트(4.77%) 오른 453.55로 마쳐 역시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가 오르면서 8.10원 떨어진

10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한때 14.20원까지 내렸다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美 초저금리 유지...근본해결은 아나 = 미국 연방준비제도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한국시각으로 10일 새벽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예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며 “오는 2013년 중반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국제 추가 매입은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심을 잠재웠다. 일단 연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FOMC 성명에 특별한 조치가 담기지 않았는데도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된 것은 FOMC가 투자자들에게 심리

적으로 기법 언덕을 만들어주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연구위원은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FOMC의 성명은 시장이 안정을 찾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다”며 “FOMC가 최근 2013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의 조치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몰라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대증권 박혁수 애널리스트는 “현 상황이 경기만의 문제라면 FOMC의 조치가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소비 리스크(국가부도위험)도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근본적·장기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 천연 포도주 요리

비에 태풍에 울 여름도 만만치 않다. 지난 비바람에 화려하던 배롱나무 꽃이 일제히 떨어졌다. 단숨에 화려함은 잃었고 대신 새로 피꽃 꽃망울만 남아 7월 초심으로 돌아갔다.

떨어진 꽃이 다시 피면 된다지만 이제 한창인 포도밭 복숭아는 무사할까?

과일을 먹으면서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가 사는 곳은 답양 고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림동 주르르 늘어진 포도밭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포도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이웃의 밥과 꿈’으로 다가왔다. 아직은 비쌀 때지만 포도 10kg을 샀다. 포도주도 담고 포도 음식도 만들어 먹을 생각이었다. 내가 담는 포도주는 흔히들 담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 설탕을 최소한으로 게다가 술 한 방울 넣지 않고 오로지 포도원액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익으면 단맛이 전혀 없는 와인 되는데 이렇게 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소주 같은 화화주와 혼합하고 싶지 않아서이고, 둘째 우수한 품질은 아니지만 서양의 와인 비슷한 맛도 내고 각종 요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몇 년 전부터는 장조림에도 넣어 봤는데 자랑 같지만 정말 괜찮은 맛이다.

사실 장조림 하나면 여름 찬밥에도 ‘몇 개는 푹딱’이니 한번 만들어 두면 상당히 편하다. 물론 만드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15분 정도 푹물을 뺀 소고기 덩어리를 먼저 끓는 물에 겉 표면만 익을 정도로 살짝 데쳐낸다.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 제거를 살균하는 의미인데 귀찮다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괜찮다. 고기 데친 물을 모두 버리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와인과 간장을 넣는다. 분량은 간장 한 컵이면 와인 3분의 2컵 그리고 물 3분의 1컵 비율인데 고기가 푹 잠길 정도로

비타민 많은 와인 장조림으로 한여름 끼니 걱정 날려보세요



냉으면 된다. 그 외에 양파 한 개와 생강 한 개, 통후추 20알, 대파 한 뿌리를 넣고 끓이는데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과 고추를 넣고 몇 분간 더 졸였다가 불을 끈다. 고추와 마늘을 나중에 넣는 이유는 물러지지 않게 해 건져 먹기 위해서다. 넣는 시기는 알아서 조정하면 된다.

와인 장조림의 장점은 그 어떤 고기를 가져 와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고기 잡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장조림 국물 역시 짜지 않아 때때로도 좋을 정도다. 먹고 남은 장조림 국물을 다시 한 번 깨끗이 재 활용(?) 한 적이 있는데 맛의 반응은 ‘대박’이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깨끗한 장조림 국물에 담는 것인데 물론 한번 끓여 담아야 하고 간이 좀 싱겁다면 장을 더 넣고 3일 뒤에 국물만 다시 한번 끓여줘야 한다. 와인과 소고기 국물이 가미된 깨끗한 장조림!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은가?

무엇보다 와인 장조림의 장점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라는 점인데 감기나 냉방병에도 효과적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글뤼바인’이란 이름으로 감기에 걸리면 와인에 과일과 계피, 생강 등을 넣고 끓여 먹는 다. 프랑스 역시 ‘뱅소’란 이와 비슷한 와인 음료에 있는데 겨울 감기 예방 목적도 있다 하니 효과는 검증된 셈 아닌가.

<‘담양매의 열 두 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광주식약청-대인시장 식품 안전관리 협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인시장 상가상인회와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안전관리 협약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지역에 식약청장과 흥철회 상가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지도·계몽을 정기적으로 실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생지도 ▲식품위생 교육 지원 ▲식중독 예방 관리 ▲관련 최신 정보교환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장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식품위생교육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식약청은 또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 직원 포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

“기회다!” 광주·전남 투자자 488만주 순매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37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투자자들은 매도보다 매수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이 기간(7거래일)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488만주(821억원)를 순매수했다. 코스피는 매도량(8282만주)보다 매수량(8749만주)이 더 많은 467만주를 순매수했으며 코스닥도 매도량(9545만주)보다 매수량(9566만주)

이 21만주 더 많았다.

거래대금은 코스피에서 매도대금이 1조1311억원이었으나 매수대금은 1조2031억원으로 72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코스닥은 4633억원어치를 매도하고 4534억원을 매수해 -99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또 이 기간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일 평균 거래량은 지난 7월 2167만주에서 19.13% 증가한 2582만주를 기록했고, 일 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7월 1879억원에서 2322억원으로 23.57% 늘었다.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실적은

코스피에서 쌍방울트라이(964만주), 진흥기업(649만주), 알앤엘바이오(582만주)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거래대금은 기아자동차(1496억 2500만원), 하이닉스(1019억8000만원), 현대자동차(817억2400만원) 순이었다.

코스닥에서는 미주제강(739만주), 이노셀(557만주), 피에스엠씨(450만주) 순으로 거래실적이 높았고, 거래대금은 메디포스트(371억2700만원), 아가방컴퍼니(328억4200만원), 셀트리온(223억3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中 추석자금 2000억 대출

KJB광주은행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 ‘추석 특별은전자금 대출 2000억원’을 편성해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대출은 추석을 전후해 체불입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 결제 자금 등 일시적인 자금수요

에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따른 것이다.

업체당 EOCNF 지원 한도는 최고 40억원이내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숙박업, 주점

업 등 사치향락 업종과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광주·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은전자금을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은 취급액의 50%(업체당 3억원 이내) 이내 해당액을 금융기관에 저리(8월 현재 연 1.50%)로 지원한다.

/최재호기자 lion@임동률기자 exian@



“올바른 경제관념 배우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4일부터 6일간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88명을 대상으로 ‘2011년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를 연 가운데 참가 학생들이 실습을 직접 만져보며 합리적 금융생활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충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고가약소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오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한/식/뷔/페 6,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계요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